

한국현대사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2주차. 이승만(1)


3강. 긍정적 평가(3)

학습 내용

1.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의 농지개혁, 의무교육,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무엇인가?
2. 농지개혁, 의무교육, 사회적 불평등 완화
평가의 객관적·주관적 측면은 무엇인가?

학습 목표

1. 이승만 정권 하의 농지개혁, 의무교육,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이 둘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 정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 large teal diamond shape with a white border, containing the title text. The background is a light gray with a fine grid pattern.

제3강 긍정적 평가(3)



생각해 볼 문제



- 나는 지금까지 농지개혁, 의무교육,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 역사적 평가에 대한 어떤 한 면만을 강조할 때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

5] 농지개혁 단행

- ☑️ 소작지 총면적의 40% (58만 5000정보)의 땅을 유상매입, 유상 분배함
- ☑️ 자작(自作)농지 확대(1945년 전체 경작면적의 35% → 1949년 92.4%)
- ☑️ 지주 토지 소유제 청산, 자작농 토지 소유제 확립
- ☑️ 농민을 지주제의 속박, 착취로부터 해방(농노·소작농 → 자작농)
- ☑️ 농업 생산성 향상,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 마련(농업 자본가 형성)

5] 농지개혁 단행

◆ 반론

- 1945년 말의 소작지 면적은 144만여 정보였으나, 5년 만에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약 55만 정보임
- 즉, 해방 당시 소작지의 38%만이 분배되고, 62%는 이미 사적으로 매각되었음

- 농지개혁의 본래 목적은 자작농 양성
- 실제로는 분배 농지에 대한 세금과 상환액이 과중하여 분배받은 농지를 되파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명실상부한 농지의 농민적 소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토지 검병과 소작지가 생겨남

농지개혁은 보상의 부실과 인플레이션으로 대지주를 제외한
중소지주 몰락, 가구당 경지규모를 영세화시킨 불철저한 개혁

6] 6년제 국민 의무교육 시행

의무교육

- 교육의 변화: 엘리트 교육 → 대중(의무)교육
- 엘리트 교육
 - 귀족의 자녀 대상, 소수의 향유물
 - 학교(school)의 기원은 여가(leisure) 혹은 오락
- 대중(의무)교육
 - 국민국가의 출현
 -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국가통합의 필요성 제기
 - 교육의 대중화(단일의 언어와 역사 교육)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체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공급
 - 대중 교육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 : 사회구성원의 지식 · 능력 보유 → 교육의 사회 이동 수단

6] 6년제 국민 의무교육 시행

✓ 전국 학령아동 취학률(1959년 95.3%)

✓ 문맹률(1945년 80% → 1959년 22%)

✓ 대학/전문학교

➡ 1945년 19개, 학생 수 8,000명 → 1960년 68개, 학생 수 약 10만 명

✓ 능력·업적 중심사회로의 전환 가능

✓ 산업화(특히, 공업화)에 필요한 인력 공급의 역할

7] 사회적 불평등(특히, 남녀 불평등)의 완화

평등(equality)의 세 가지 주요한 형태

- 기회의 평등
 - 관련되어 있는 사회집단간의 제도나 사회적 위치에 접근할 평등의 조항
 - 남녀 공학, 모든 계급 출신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평등
- 조건의 평등
 -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회집단의 삶의 조건에서의 평등
 - 소득의 평등
 - 조건의 평등을 수반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
 - 상이한 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획득된 다양한 특혜를 즐기는 기회의 평등
옹호자들은 성공을 거둔 한 세대에 의해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물질적 · 문화적 이점을 무시
 - 조건의 불평등은 기회의 평등 방해
 - 모든 사람들이 동일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7] 사회적 불평등(특히, 남녀 불평등)의 완화

평등(equality)의 세 가지 주요한 형태

- 결과나 산출에서의 평등
 - 궁극적인 평등의 출발점
 - 불평등을 변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에 서로 다른 정책이나 과정을 적용하는 것
 - 예를 들면, 교육이나 직업적 선발에서 여성이나 흑인, 혹은 도시 내의 빈민에게 유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조건의 불평등을 상쇄하는 것을 의미
 - 그렇지 않으면 기회의 평등이 무의미해질 것임
 - 사회적 평등은 무계급성과 동의어가 아님
 - 계급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계급의 철폐가 그 자체로서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님

7] 사회적 불평등(특히, 남녀 불평등)의 완화

- ✓ 1958년 기준, 각급학교의 여학생 수 1945년 대비 초등학교 약 3.1배
- ✓ 중고등학교 약 6.1배, 사범학교 약 2.5배, 대학교 약 8.5배 증가
- ✓ 여성들의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의 확대

학습 정리

- ?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농지개혁, 의무교육 실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이 있다.
- ? 이런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 ?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다면적 차원이 있다.



참고문헌 및 읽을 거리

- 유영익. 2013.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업적과 유산.” 차하순 외. 『한국현대사』. 세종연구원. 120-135.
- 정승현. 2017. “이승만과 한국 자유주의.” 『현대정치연구』 10(1): 255-286.